

## 【 국내금융 뉴스 】

## PF 대출 은행권 감소 보험권 증가

□ 은행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험권의 경우에는 PF 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조 4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천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동기간 은행권 PF 대출 잔액은 54조 9천억원에서 46조 5천억원으로 8조원 이상 감소함.

-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PF 대출 잔액이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생명보험회사 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정리로 인하여 PF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보험권으로의 집중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 Flow)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보험회사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PF 대출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우량 프로젝트 위주로 대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지난해 3월말 기준 6.4%였던 손해보험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올해 3월말 기준 11.1%를 나타내면서 크게 상승했으며 올해 3월말 기준 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이 2.9%인 것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일부 보험회사의 일시적 대처라고 할지라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이 최우선인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PF 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부동산 PF 대출, 은행 줄이는데 보험사는 늘려 등, 연합뉴스 등, 7/25)